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의 야생버섯에 대한 전통 지식

고평열¹ · 강신호² · 송관필³ · 전용철^{1*}

¹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²세명대학교 자연약재과학과, ³제주환경자원연구소

Traditional Knowledge on Wild Mushrooms in the Surrounding Villages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Pyung Yeol Ko¹, Sin Ho Kang², Gwan Pil Song³ and Yong Chull Jeun^{1*}

¹Major of Plant Resources & Environment, College of Applied Life Sciences, The Research Institute for Subtropical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²Department of Natural Medicine Resources, Semyung University, Jecheon 390-711, Korea

³Rm. 603, Jeju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Co., Ltd. BI Center, Jeju Tourism College, 2535 Kwangryung-2Ri, Aewol-Eup, Jeju-si, Jeju. 690-791, Korea

ABSTRACT : Traditional knowledge on wild mushrooms in Gyeongnam province near of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was investigated. It was interviewed from 145 of people in age of 50th's to 90th's living in 53 villages. Total 19 mushrooms were used for food in which *Ramaria botrytis*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followed *Macrolepiota procera* and *Lentinula edodes*. *L. edodes* was uniquely both medicinal and edible. *Chlorophyllum neomastoidea*, poisonous mushroom, was used as an insect repellent. The most various mushrooms were found in Irun, Geoje where 10 species of mushrooms were used and followed Jingyo, Hadong where 8 species were used. Among the interviewed people, the number of female was more than double compared to that of male and most of the interviewed people were 70th's and 80th's in age.

KEYWORDS : Biodiversity, Hallyeohaesang National Parks, Wild mushroom

서 론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통영시 한산도 사이의 한려수도 수역과 남해도, 거제도 등 남부 해안 일부를 합쳐 지정한 국립공원지역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지역은 타 지역 농촌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관광객 등 외부인 출입이 잦으며 지역출신의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찾기 위해 대도시로 떠나고 있어서 지역 고유의 지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구전되어 온 자생버섯에 대한 전통적 지식은 고령층의 오랫동안 경험해 온 지식과 함께 정보화되어 있으나 노인들의 급속한 기억력 감퇴와 사망에 의하여 함께 사라지고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급한 실정에 있다.

최근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지역민들로부터 구전되고 있으나, 사라져 가고 있는 야생버섯의 전통적인 이용법과 효능과 가치에 대한 전문조사가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였다(Ko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확대연구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전통 지식을 조사함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내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조성하며 아울러 생물 산업 활용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 J. Mycol. 2013 June 41(2): 127-131
http://dx.doi.org/10.4489/KJM.2013.41.2.127
pISSN 0253-651X
©The Korean Society of Mycology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cjeun@jejunu.ac.kr

Received February 14, 2013

Revised June 1, 2013

Accepted June 16, 2013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야생버섯의 전통지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에 걸쳐 한려수도국립공원에 포함된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등 5개 시·군의 53개 마을을 방문하여 전통생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Fig. 1). 조사는 마을의 노인정, 마을회관, 가택, 길거리 등지에서 총 145명(남자 43명, 여자 10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버섯에 대한 이용방법, 분포, 지방에서 부르는 버섯명 등을 주로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자는 버섯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과정은 음성녹취를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면담 대상자는 남자는 53세부터 86세까지 평균 74.8세, 여자는 66세부터 93세까지 평균 78.2세였고, 남자가 43명으로 29.6%, 여자는 102명으로 70.4%로 나타났다(Table 1). 남자는 이 지방에서 60년 이상 살았거나 조상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외부에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일부 포함되었다. 여자는 고향이거나 타지방에서 이곳으로 시집와서 5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노인정이나 길거리 정자 등에서 만날 수 있는 면담 대상자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던 버섯지식에 대한 증언은 여자 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주도적으로 증언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버섯은 총 19분류군으로 확인되었고(Table 2), 그 중 9종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고 10종은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Table 3). 이 중 식용으로 이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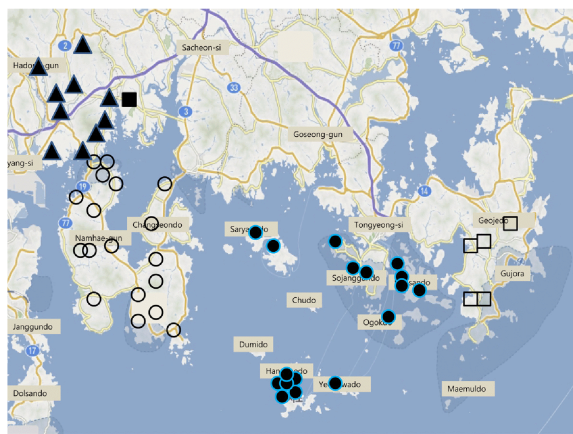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map of the surveyed areas for wild mushrooms. (▲: 10 villages in Hadong-gun, ○: 18 villages in Namhae-gun, ■: 1 village in Sacheon-si, ●: villages in Tongyeong-si, □: 5 villages in Geosje-si)

Table 1. Age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respondents

	Age group					
	Total	50th	60th	70th	80th	90th
Interview respondent	145	2	15	71	54	3
Sex (male/female)	43/102	1/1	10/5	16/55	15/39	0/3

버섯은 14분류군, 독버섯 증상을 경험한 버섯이 2분류군, 약용으로 이용되어 온 버섯은 5분류군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2). 식용이면서 독증상이 나타나는 버섯과 약용이면서 식용으로 이용되어 온 버섯이 각 1종씩으로 확인되었다. 야생버섯에

Table 2. Scientific name and use of wild mushrooms in the studied villages nearby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Scientific name	Korean name	Usage*
BASIDIOMYCOTA	담자균문	
AGARICOMYCOTINA	담자균아문	
AGARICOMYCETES	담자균강	
AGARICALES	주름버섯목	
Agaricaceae	주름버섯과	
<i>Chlorophyllum</i>	흰갈대버섯속	
<i>C. neomastoidea</i> (Hongo) Vellinga	독흰갈대버섯	T
Macrolepiota	큰갓버섯속	
<i>M. procera</i> (Scop.) Sing.	큰갓버섯	E
Clavariaceae	국수버섯과	
<i>Clavaria</i>	국수버섯속	
<i>C. fragilis</i> Holmsk.	국수버섯	E
Marasmiaceae	낙엽버섯과	
<i>Lentinula</i>	표고속	
<i>L. edodes</i> (Berk.) Pegler	표고	E, R
Physalacriaceae	팽나무버섯과	
<i>Armillaria</i>	팽나무버섯속	
<i>A. mellea</i> (Vahl) P. Kumm	팽나무버섯	E
<i>Pulammulina</i>	팽나무버섯속	
<i>P. velutipes</i> (Curt.: Fr.) Sing	팽나무버섯	E
Pleurotaceae	느타리과	
<i>Pleurotus</i>	느타리속	
<i>P. ostreatus</i> (Jacq.: Fr.) Kummer	느타리	E
Tricholomataceae	송이버섯과	
<i>Lepista</i>	지주팽망이버섯속	
<i>L. nuda</i> (Bell.: Fr.) Cooke	민지주팽망이버섯	E
<i>Tricholoma</i>	송이속	
<i>T. matsutake</i> Ito & Imai	송이	E
CANTHARELLALES	피꼬리버섯목	
Cantharellaceae	피꼬리버섯과	
<i>Cantharellus</i>	피꼬리버섯속	
<i>C. cibarius</i> Fr.	피꼬리버섯	E
GOMPHALES	나팔버섯목	
Gomphaceae	나팔버섯과	
<i>Ramaria</i>	싸리버섯속	
<i>R. botrytis</i> (Pers.) Ricken	싸리버섯	E
HYMENOCHEATALES	소나무비늘버섯목	
Hymenochaetaceae	소나무비늘버섯과	
<i>Phellinus</i>	진흙버섯속	
<i>P. linteus</i> (Berk. & M.A. Curtis) Teng	상황진흙버섯	M
POLYPORALES	구멍장이버섯목	
Ganodermataceae	불로초과	
<i>Ganoderma</i>	불로초속	
<i>G. lucidum</i> (Leyss.: Fr.) Karst.	불로초	M
Meripilaceae	왕잎새버섯과	
<i>Grifola</i>	잎새버섯속	

Table 2.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Usage*
<i>G. frondosa</i> (Dicks.) Gray	잎새버섯	E
Polyporaceae	구멍장이버섯과	
<i>Trametes</i>	송편버섯속	
<i>T. versicolor</i> (L. : Fr.) Quél.	구름송편버섯	M
<i>Wolfiporia</i>	복령속	
<i>W. extensa</i> (Peck) Ginns	복령	M
RUSSULALES	무당버섯목	
<i>G. frondosa</i> (Dicks.) Gray	잎새버섯	E
Polyporaceae	구멍장이버섯과	
<i>Trametes</i>	송편버섯속	
<i>T. versicolor</i> (L. : Fr.) Quél.	구름송편버섯	M
<i>Wolfiporia</i>	복령속	
<i>W. extensa</i> (Peck) Ginns	복령	M
RUSSULALES	무당버섯목	
Hericiaceae	노루궁뎅이과	
<i>Hericium</i>	노루궁뎅이속	
<i>H. erinaceus</i> (Bull.) Pers.	노루궁뎅이	E
THELEPHORALES	사마귀버섯목	
Bankeraceae	노루털버섯과	
<i>Boletopsis</i>	굴뚝버섯속	
<i>B. leucomelaena</i> (Pers.) Fayod	굴뚝버섯	E
Sarcodon	능이버섯속	
<i>S. aspratus</i> (Berk.) S. Ito	능이버섯	E

*Abbreviation: E = edible, M = medical, R = religious, T = toxic.

대하여 수집된 165건의 전통지식 중, 식용에 관련된 지식이 가장 많아서 72건이 수집되었고 서식지 및 버섯의 모양과 관련된 지식이 48건, 독버섯 이용과 관련한 지식이 21건으로 나타났다. 하동군 진교면과 남해군 삼동면에서 지의류인 석이(*Umbilicaria esculenta*)를 식용버섯으로 이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가장 다양한 버섯이 증언된 지역은 거제시 일운면으로 10종에 이르는 버섯의 전통지식이 확인되었고, 하동군의 진교면에

서 8종이 출현하였다. 반면 남해군의 미조면과 남면, 하동군의 금성면, 금남면 거제시의 남부면에서는 각 1종의 버섯만이 확인되어서 버섯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큰갯버섯(*Macrolepiota procera*)은 설천면에서는 창꼬꾸, 독흰갈대버섯(*Chlorophyllum neomastoides*)은 산양읍에서 중뽕이라고 칭하는 독특한 증언이 나왔으며, 큰갯버섯은 불리는 이름이 7가지, 독흰갈대버섯은 8가지로 마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다는 점 또한 다른 출현종들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버섯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하는 노인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조사 시 방문했던 53개의 마을 중 19개 마을에서 버섯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가장 이용도가 높았던 식용버섯은 찌리버섯(*Ramaria botrytis*)으로, 조사 대상지 중 12개 마을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었던 전통지식이 채록되었으며, 큰갯버섯이 10개리에서, 표고(*Lentinula edodes*)는 9개리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어 온 지식이 수집되었다. 표고의 경우 전이나 구이용으로 식용하였으나, 큰갯버섯은 대부분 호박알에 싸서 구워먹는다고 증언하여 이 지방의 고유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약용버섯에 대한 정보는 총 5종이 출현하여 19건의 전통지식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불로초(일반명; 영지, *Ganoderma lucidum*)가 가장 많이 이용되어 10개의 마을에서 이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버섯은 약용으로의 이용이 매우 미미하여 식용이나 독버섯에 비해 전통지식이 적게 나타났다.

독버섯 사고의 경험은 독성이 있는 찌리버섯을 식용과 혼동하여 섭취한 사례 1건으로 나타났다(Seok et al., 2011).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가까운 주변에 깊은 산이 존재하지 않고 바다에 의존하는 생활 풍속 때문에 야생버섯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해안가에서 생선을 많이 다루는 생활 때문에 파리가 많아서 파리잡이용으로 독버섯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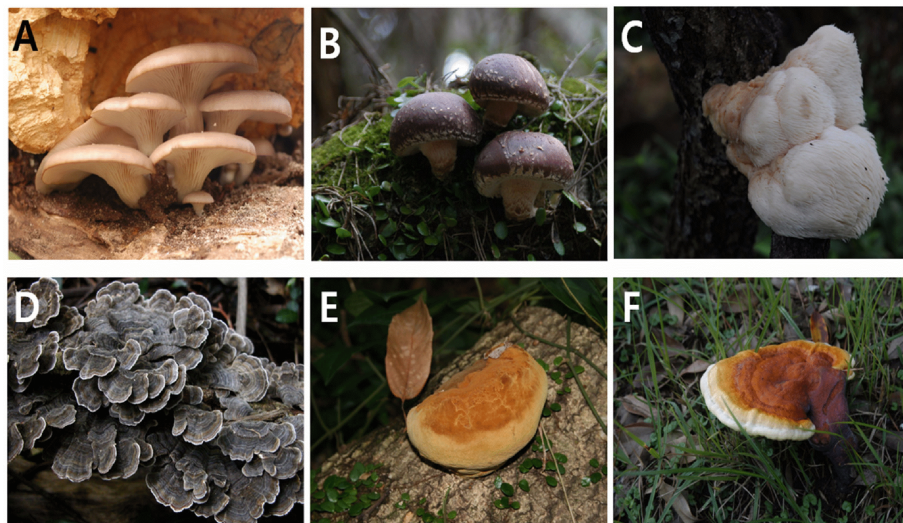


Fig. 2. Photographs of surveyed wild mushrooms in this study. They were taken at the traditional market nearby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A. *Pleurotus ostreatus*, B. *Lentinula edodes*, C. *Hericium erinaceus*, D. *Trametes versicolor*, E. *Phellinus linteus*, F. *Ganoderma lucidum*

Table 3. Common and vernacular names of wild mushrooms according to the regions

[illegible]

Table 3. Continued

Region	Wild mushrooms examined this study									
	<i>R. idobotrytis</i>	<i>P. linteus</i>	<i>G. lucidum</i>	<i>G. frondosa</i>	<i>T. versicolor</i>	<i>W. extensa</i>	<i>H. erinaceus</i>	<i>B. leucomelaena</i>	<i>S. imbricatus</i>	<i>U. esculenta</i>
Gojeon-myeon	Ssarak-beoseot, Ssari-beoseot		Yeongji-beoseop, Yeongji-beoseot	Bannamu-beoseup						
Geumseong-myeon										
Hadong-eup	Ssar-i-beoseup									
Yangbo-myeon	Ssari-beoseup									
Jingyo-myeon	Ssari-beoseup		Yeongji-beoseot				Gupdeodegi			Seoki, Dol-beoseot
Geumnam-myeon										
Seolcheon-myeon										
Sangju-myeon			Chamnamu-beoseot							
Mijo-myeon			Yeongji-beoseot							
Seo-myeon	Ssari-beoseot	Sanghwang-beoseot	Yeongji-beoseot		Gureumbeseot				Neungi	
Nam-myeon										
Samdong-myeon	Ssari-beoseot		Yeongjibeoseot							Beoseup, Seoki-beoseot
Dongbu-myeon	Ssari-beoseot		Yeongji		Unji					
Nambu-myeon										
Irun-myeon	Ssari-beoseot									
Sanyang-eup	Ssari-beoseot		Yeongji-beoseot				Eongdeongi-beoseot	Gupdeodeok		
Yokji-myeon										
Saryang-myeon			Yeongjibeoseot				Bongnyeong			

려해상국립공원 인근지역에서의 독특한 전통지식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독흰갈대버섯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파리를 잡기 위하여 채취하여 이용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독버섯 오용사고로는 기어 다니던 아거나 노망든 할머니가 파리를 잡으려고 놓아둔 독흰갈대버섯을 먹고 사망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독흰갈대버섯과 유사한 큰갓버섯을 많이 섭취하는 제주에 비해 이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례가 극히 적었다(Ko *et al.*, 2012).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큰갓버섯 섭취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싸리버섯 외에는 직접적인 버섯을 채취하여 섭취함으로 인한 독버섯 중독 사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 요

본 연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의 경남지역의 야생버섯에 대한 전통지식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총 53개 마을에서 50~90대까지 145명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총 19개 야생버섯이 식용버섯으로 사용되었는데 싸리버섯이 식용버섯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고, 큰갓버섯과 표고 순위로 식용하였다. 표고는 식·약용버섯으로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독흰갈대버섯은 독버섯인데 곤충퇴치용 버섯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다양한 버섯이 증언된 지역은 거제시 일운면으로 10종에 이르는 버섯의 전통지식이 확인되었고, 하동군의 진교면에서 8종이 출현하였다. 전통 지식에 대해 조사에 응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증언하였고 연령층은 70~80대가 가장 많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Kim, H. R., Cho, B. Y., You, M. N., Kim, M. H. and Kang, K. H. 2003. A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4:93-106. (in Korean).
- Ko, P. Y., Lee, S. H. and Jeun, Y. C. 2012. Species and distribution of native wild mushrooms traditionally using in Jeju Island. *Kor. J. Mycol.* 40:39-43. (in Korean).
- Korea Maritime Institute. 2012. A study on response and support for Nagoya protocol.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p. 14-14. (in Korean).
- Lee, T. S. 2013. Rearrangement of Korean recorded mushrooms. Korea Society of Forest Environment Research. pp. 1-52. (in Korean).
- Nagoya Protocol. 201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Nagoya, Japan.
-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004. Mushrooms of Korea-edible and poisonous mushrooms. pp. 467. Dong-Bang Media. (in Korean).
- Research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Rural Resources 2005. Resourcing and valuing traditional knowledg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p. 12-13. (in Korean).
- Seok, S. J., Kim, Y. S., Kim, W. K., Seo, J. S., Jung, M. H., Lim, K. S., Son, C. H. and Lee, Y. S., 2011. The poisonous mushroom book pp. 352-363. Blue Happiness. (in Korean).